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_ Driving Tomorrow NEXEN

# HELLO NEXEN



거꾸로 보는 세상





# 봄 이 여 오 라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생겼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꽃잎이 얇아 춤을 추듯 훑날리는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순간 소멸하듯이 말이지요.  
자, 찬란한 봄이 저만치 가버리기 전에  
한눈 가득 담아보세요.  
화려하기에 더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 N value

- 04 Column  
역발상의 즐거움, 아니요 놀이
- 06 Story  
고정관념 타파! 아이디어 제품
- 10 Interview  
엄마와 배낭여행 - 여행작가 태원준 母子
- 14 Mentor & Mentee  
유럽팀 선·후배의 하루 만에 즐기는 세계여행
- 18 Culture  
크리에이티브한 광고 포스터
- 20 N Mind  
"이것만큼은 꼭 발명되었으면 좋겠다"

## N life

- 24 Drive & Leisure  
벚꽃, 개나리꽃, 웃음꽃 만발! 청주 수암골
- 30 N Hero  
행복한 강태공의 '낚시학개론'
- 34 Family Day  
총무!팀 김철홍 사우 부부의 무스토이 체험
- 38 Food Story  
서울사무소 사우 추천 맛집
- 42 Health Plus  
춘곤증 이기는 생활 수칙
- 44 Money Tip  
마이너스 통장 탈출 비법
- 48 Kids Love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한다!
- 50 Wide Road  
스위스 마이엔펠트,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찾아서

## N company

- 52 Team Story  
RE개발1팀 야구체험스토리 관람
- 60 Happy Together  
정련파트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 64 Letter Box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 66 Tire World  
진정한 프리미엄 타이어 N'FERA AU5, N'FERA RU5
- 68 Nexen Friends  
타이어뱅크 동광주점

## News center

- 72 On Air  
넥센타이어 축구단 FA컵 진출
- 76 Nexen News  
넥센 뉴스
- 82 N Voice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 83 Epilogue  
포토퍼즐 및 당첨자 발표



### 표지 이야기

꿀찌로 달리던 사람이 일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결승점을  
바꿔 버리는 것이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운명도 바뀔 겁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  
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4년 봄호 통권 55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4년 4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I (02-  
795-3364) |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내 책에 실린 ‘경력의 의미’라는 짧은 글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 경력이라는 단어를 뒤집어봤더니 저절로 글이 되어버린 것이다. 독자들은 알아서 ‘역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며 이 글에 공감해주었다. 내 글숨씨에 공감한 게 아니라 내 뒤집기에 공감해주었다. 역발상이란 이런 것이다. 남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 문제를 뒤집고 비틀어서 오히려 오답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나는 이 오답을 오답(誤答), 즉 틀린 답이라고 표기하는 데는 반대한다. 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답, 오! 하는 감탄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답, 나만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 ‘아니요!’ 놀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사회에선 정답보다 오답이 환영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는 것들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1분만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다. 우리 안에는 자유로운 상상을 방해하는 꾀방꾼들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 상식, 당연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고정관념. 이놈은 늘 ‘바르게’라는 말을 앞세우며, 정해진 규격과 질서 안에서만 생각하라고 강요한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요!’ 놀이다. 고정관념이라는 놈이 “바르게”라고 말할 때 그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놀이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인가. 아니다.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다. 현실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다. 고정관념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는 가장 긍정적인 한마디다. 상식에게, 당연에게, 습관이나 관습에게, 유행에게, 편견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라. 이렇게.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도 있지요. 가장 외로운 섬은 무인도다.

*역발상이란 남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 문제를 뒤집고 비틀어서  
오히려 오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도 있지요.*

*가장 외로운 섬은 무인도다.*

*아니요, 가장 외로운 섬은 한 사람만 사는 섬이지요.*



아니요, 가장 외로운 섬은 한 사람만 사는 섬이지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 하나만 바라봐야지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잉꼬는 늘 다정하다. 아니요, 잉꼬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만 싸우지요. 싱싱한 물고기가 오래 산다. 아니요, 싱싱한 놈이 접시 위에 먼저 눕지요.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밍크의 수명은 10년이다. 아니요,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살지요. 물론 ‘아니요!’라는 말만 한다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이 따라나오는 건 아니다. 평소 애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고 수상한 짓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씩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각 비틀기 연습이다. 익숙한 생각을 낯선 생각으로 교체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연습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방법은 먼저 생활을 비트는 것이다. 생활을 비틀어야 생각도 비틀어진다. 생활과 생각은 일란성 쌍둥이다. 생활이 30분쯤 형님인 쌍둥이다. 형님을 먼저 비틀면 동생도 형제애를 발휘하며 못이기는 척 따라오게 되어 있다.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생활을 하는 당신의 몸과 마음은 막

대기처럼 경직되어 있다. 생활을 비튼다는 것은 경직된 몸과 마음을 말랑말랑 유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똑같은 일상, 우선 그것부터 비틀어보라. 자주 보는 TV 채널도 비틀어보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 괜히 한번 문도 두드려보고, 안경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버스도 타보고, 그래서 323번을 타야하는데 232번도 타보고, 와인 잔에 소주도 마셔보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절에도 가보고, 비오는 수요일에 노란 장미도 사보고, 이렇게 생활을 비틀어야 생각도 비틀 수 있고 그래야 역발상이 가능하다.

‘아니요!’ 놀이가 꼭 역발상이나 창의력 같은 거창한 목표를 향하지 않아도 좋다. 대답 하나만 살짝 비틀어도 하루 종일 심각했던 친구 얼굴을 활짝 펴줄 수 있다. 재미있는 대답엔 반응이 있다. 웃거나, 어이없어하거나, 어깨를 탁 치거나. 그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을 낳는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하루 한두 개씩만 아니요 놀이를 해보라. 모든 하루의 합이 인생이다. 하루가 조금 더 재미있어지면 결국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마는 것이다. ㉞

#### Profile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인생의 목적어>, <내 머리 사용법>,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등의 책을 썼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 고정관념 타파! 아이디어 상품

역사상 최초의 비행을 이룩해낸 라이트 형제가 한때 '자살광'이라는 오명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천재 형제의 발명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뒤집었을 때 비로소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법.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한다.



### 우산살이 바깥에 UnBRELLA

비오는 날 만원 전철이나 버스에 타 본 사람이라면 젖은 우산이 주는 불편함을 알 것이다. 서 있을 공간도 없이 딱 붙어있다 보면 기껏 차려입고 나온 옷이 우산의 물기로 젖기 십상. 구상에만 수십 년이 걸렸다는 UnBRELLA는 이름부터 기존의 우산을 거부한다. 접었을 때 젖은 면이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옷이 젖지 않고, 애초에 뒤집어져 있다 보니 강풍이 불어도 뒤집힐 염려가 없다. 우산살이 외부에 있어 펼치는 순간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우산꽃이 없어도 혼자 설 수 있는 등 실용적인 면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www.h-concept.jp](http://www.h-concept.jp)

### 세 짝이 한 켤레 론니슈즈

사람의 발이 두 개이니 신발도 두 짝이 한 켤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여기 세 짝이 한 켤레라는 황당무계한 구두를 내놓은 곳이 있으니, 바로 블랙마틴잇봉의 론니슈즈가 그것이다. 다른 디자인 한 짝이 더 포함되어 기분에 따라 두 가지 연출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들쭉날쭉 바뀌는 여자 입장에서 더 주는 것이 론니슈즈의 콘셉트였다면 올봄에는 왼쪽 신발 한 짝을 더 주는 L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론니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L 시리즈를 구입하면 총 여섯 짝이 되어 무려 9가지 조합으로 신을 수 있는 것이다. 봄나들이에 신고 갈 신발이 없어 망설였던 이라면 L시리즈에 주목해보자.

[www.blackmartinesitbon.com](http://www.blackmartinesitbon.com)



### 실이 필요 없다 TIC 단추 부착 키트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하필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반질고리를 사다가 한 땀 한 땀 꿰매 시간은 없고... 이런 이들을 위해 스웨덴에서 개발된 초 간단 단추 부착 키트 틱(Tic)이 국내에 상륙했다. 틱(Tic)은 떨어진 단추를 바늘과 실 없이 간단하게 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쁜 비즈니스맨들이나 바느질이 서툰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옷감이나 단추가 너무 두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셔츠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한 세트에 들어있는 4개의 키트로 기본 2개, 비상시 최대 4개까지 단추를 부착할 수 있다. 성냥갑만한 작은 사이즈에 간편하기까지 해 머지않아 출장이나 여행시에 꼭 가져가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다.

[www.ticsweden.kr](http://www.ticsweden.kr)





## 손끝으로 느끼는 시간 브래들리 시계

US 해군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아프가니스탄 복무 중 폭발 습격으로 영영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2012년 런던 세계 장애인 올림픽 수영 부문에서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한 개를 획득했다.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된 것이다. 이를 본 한국인 디자이너는 그의 이름을 따 굳이 보지 않아도 손끝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브래들리 시계를 만들었다. 콘셉트는 'Design for Everyone'. 일반인은 물론 시각장애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계로 양 측면에 자석쇠구슬을 달아 시간과 분을 손가락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소리 나는 손목시계를 사용해야만 했던 시각장애인들도 조용히 시간을 알 수 있으니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 상품이 또 있을까?

www.eone-time.kr



## 휘어지는 멀티탭 Pivot Power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피봇파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2'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다. 보편화된 일자형 멀티탭은 어댑터가 큰 경우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하기가 힘들었고 미관상 예쁘지도 않아 애물단지가 따로 없었다. 이에 비해 각각의 콘센트를 구부릴 수 있는 피봇파워는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어댑터도 꽂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또 콘센트 손잡이 부분에 홈이 파여 있어 쉽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www.croberry.com



당연한 것을 뒤집었을 때 비로소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법.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다 타조베개

밤샘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 잠시 엎드려 쪽잠을 청해보지만 딱딱한 책상 탓에 목만 결릴 뿐 도무지 편하게 잘 수가 없다. 내 방 침대에 있는 폭신한 베개 생각이 간절한 이 때! 숙면을 도와줄 기특한 베개가 있다. 유럽 디자인 그룹 스튜디오 바나나에서 기획한 타조베개는 낮잠을 잘 때 눈과 귀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소재로 포근함까지 느낄 수 있다.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 다소 민망할 수도 있지만 뭐 어때랴. 편한 게 제일이다. 만약 다른 동료가 나를 보고 웃어준다면 그 또한 즐거운 일 아닌가. 첫 번째 모델이 출시된 후 주니어 버전과 라이트 버전도 추가로 출시되었다고 하니 용기가 부족한 이에게는 라이트 버전을 추천한다. 

www.tapped.co.kr



## 커피에서 짬맛이? 솔티 아포가또

수박이나 딸기에 설탕 대신 소금을 뿌리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그런데 커피에 소금을? 파스쿠찌에서 맛볼 수 있는 솔티 아포가또는 천일염으로 만든 젤라토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쓴맛과 단맛 그리고 짬맛이 골고루 어우러진다. 설탕이 귀해 소금커피를 마셨다는 고대 서양문화에서 착안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메뉴로 기존의 아포가또에 소금을 넣은 솔티 젤라토가 더해지면서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배가 된 것이 특징이다.

www.caffe-pascucci.co.kr





##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저자 태원준 작가 · 한동익 어머니

10kg이 넘는 배낭을 둘러멘 60세 엄마와 30세 아들이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떠났다.  
이 파트너의 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두 손 꼭 잡고 청다오에서 시작해 런던으로 끝나는  
태원준 작가(이하 '아들')와 한동익 어머니(이하 '엄마')의 생생한 추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넌 친구랑 노니?

난 엄마랑

배낭여행 간다



## 엄마, 나랑 여행 갈래?

따뜻한 미소가 밝게 빛나는 모자(母子)가 약속된 카페로 들어섰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유난히 다정해보였다. 시종일관 새롭고 즐거웠던 300일간의 세계일주. 그러나 그 시작이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남편과 어머니를 잃어 상심에 빠져있던 엄마를 슬픔으로부터 구하자는 것이 '엄마 환갑 선물 프로젝트: 세계배낭여행'의 발단이었으니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침 환갑을 맞아 뭘 헤드릴까 누나와 고민하다가 여행을 선물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일생을 쉽 없이 달려오시기도 했고, 엄마 인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여행 상품권'을 받아든 엄마는 처음엔 가당치도 않은 소리 말라며 손을 내저었다. 반평생 운영해온 가게도, 혼자 두고 갈 딸도 온통 걱정거리였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가게로 달려가 몇 달을 설득한 끝에 결국 엄마도 배낭을 메기로 결심했다.

둘이 합쳐야 100kg이 겨우 되는 가냘픈 두 사람이 세계여행을 떠나겠다고 공표한 순간,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엄마의 나이와 체력도 그렇지만 아들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떠난다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여차하면 No.1 효자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무엇이 이들의 앞길을 막을소냐. 출국은 2012년 2월 16일, 입국은 엄마의 체력이 방진된 날. 엄마의, 엄마에 의한, 엄마를 위한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온 지구가 충전해주는 에너지에 탄력 붙은 엄마 덕분에 열 달간 집에 돌아오지 못할 미래는 생각지도 못한 채!





## 또 하나의 패스포트, '엄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낭여행 길에 오른 이상, 마음껏 먹고 좋은 곳에서 자며 비행기를 펄펄 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배편으로 중국에 입성해 23시간 동안 버스로 낭떠러지 옆길을 질주하고, 걸어서 국경 넘나들기를 여러 날. 이러다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이던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엄마는 새롭게 경험하는 재미에 녹아들고 있었다. 중국의 광장에서 신나게 춤추고, 방콕에서 열린 물총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며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만큼.

“엄마가 놀 줄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시간이, 공간이, 상황이 없었던 거죠. ‘엄마는 파스타보다 밥과 국을 좋아할 거야’ 같은 편견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맛있는 파스타는 엄마에게도 맛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 엄마를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세계 곳곳의 거리에서 만난 여행객들은 이 모자(母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자유분방한 유럽의 젊은이들은 엄마를 덤석 껴안았고, 잠시 들른 카페의 사장님은 끝없이 음료를 리필해주시기도 했다. 게다가 몸수색은 물론 카메라까지 분리해 검사할 정도로 삼엄했던 이스라엘 국경 사무소 직원도 엄마의 환갑 선물 스토리를 듣더니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굿 럭”이란다. ‘엄마’는 세계인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는 만국공통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여행을 응원받는 기분이었어요. 문득 ‘남들이 쉽게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카우치서핑(현지인들이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인터넷 여행자 커뮤니티)을 할 때에도 엄마 덕분에 배려를 많이 받았답니다.”



태원준 작가의 블로그 '둘이 합쳐 겨란 세 판, 세계여행을 떠나다 (blog.naver.com/sneedle)'에 가면 이들 모자의 생생한 여행기를 볼 수 있다.



## 세계 속의 우리, 꿈엔들 잊힐 리야

300일간 50개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장면을 마음에 담았을 터.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던 풍경과 삶을 맞대고 웃던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기 때문일까. 두 사람이 추억을 더듬을 때마다 다시 그 시간, 그 장소에 선 듯 표정에 행복감이 한가득 어린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특히 스리랑카와 터키가 기억에 남아요. 스리랑카는 음식을 나누는 인심도 넉넉하고 스스럼없이 달려와 사진 찍자며 포즈를 취하는 게 꼭 우리나라 60년대의 순수함이 녹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터키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볼거리가 많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작고 사근사근하던 엄마의 목소리에 점점 활기가 실린다. 한국에 살면서 부산여행 한 번 못 가봤던 엄마가 스리랑카의 순수함, 터키의 장엄함, 브루나이의 한적함과 스위스의 흥겨움을 이야기한다.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기 어땠지, 우리 저기도 갔었잖아. 엄마와 평생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생겼다는 게 참 뿌듯해요. 무엇보다 작은 것에도 기대하고 의욕을 보이는 엄마의 변화된 모습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네요.”

여행의 엄청난 묘미를 알아버린 엄마의 다음 목표는 남아메리카다. 엄마만 건강하시다면 또 한 번의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는 아들의 어깨가 유독 든든해 보인다.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해줘서, 여행의 기쁨을 알게 해줘서 서로에게 고맙다는 태원준 작가와 한동익 어머니. 두 사람이 남아메리카에서 겪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㉞





유럽팀 강영한 · 박성민 사우

# 하루 만에 즐기는 세계여행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우의 아우라가 심상치 않다.  
부천의 한 거리를 밀라노 컬렉션 런웨이를 만들어버릴 듯한  
패션감과 걸음걸이가 돋보이던 유럽팀 강영한, 박성민 사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밀라노로 떠나보자고,  
빠곡한 일상의 한 귀퉁이를 떼어 여행을 즐겨보자고,  
그렇게 이들의 세계여행이 시작됐다.



**두 남자, 세계를 한눈에 담다**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이 한곳에 모인 부천 아인스월드에  
입성하자마자 두 사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니어처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정교하고 세밀한 재현에 놀란 모양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나 프랑스 에펠탑 앞에 선  
강영한, 박성민 사우. 마치 샹드마르스 공원에 온 듯 포즈  
잡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파리지점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한  
사우는 해외출장을 온 듯한 느낌일 테다. 감탄스러울 정도로  
섬세한 건축물에 집중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앞에 다다랐다. 3천 개가 넘는 거대한 조각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수백 개 유리 첨탑의 장엄한 위용에  
웬지 모를 경건함이 느껴진다. 밀라노의 심장인 대성당을  
뒤로하고 달려간 곳은 피사의 사탑. 양쪽에서 밀고 받치며  
장난치는 게 꼭 꾸러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광활하게 펼쳐진 아프리카,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도시가 있는 서아시아, 공중 도시  
마추픽추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까지  
무언가에 홀린 듯 대륙을 넘나드는 두 사우에게서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하긴, 세계 이곳저곳의 명소가 다 모인  
이곳에서 누가 놀라지 않으랴.  
“여기 내가 가봤던 곳이야. 그때 여기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참 맛있었는데!”  
예전의 여행 기억을 꺼내 각자의 추억을 공유하며  
타임스퀘어에서는 뉴욕의 활발함을, 자금성에서는 중국의  
정기를 한껏 느끼던 두 사우. 하지만 유럽존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듯했다. 누가 유럽팀의 에이스 사원들  
아니랄까봐!







### 유럽,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두 사우가 속한 유럽팀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의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지의 지점장, 법인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분석함은 물론, 실질적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본사 차원에서 지원한다. 유럽의 지역 간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유럽팀이 맡은 중요한 임무다. “유럽 내 지점이 여럿이고 각 지점에서도 많은 지역을 관장하니까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저희 팀 담당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밸런스를 맞추죠. 지역 간 균형 유지가 중요한 만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럽팀은 유럽과 넥센타이어가 소통하는 첫 관문이고,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을 하다 보니 업무 시 긴장할 일도 종종 생긴단다. 유럽으로 보내는 사소한 문서 하나도 넥센타이어의 이미지를 반영하기에 꼼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개를 끄덕이던 박성민 사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한번은 강영한 선배에게 혼나고 여자친구한테 ‘군기반장에게 혼났다’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그걸 선배에게 보낸 거 있죠. 순간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던지... 긴장하고 있던 찰나에 선배가 ‘혼났으면 잘해’라며 어깨를 툭 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데

이해해주셔서 고맙죠.”

이야기를 듣던 중 강영한 사우의 입꼬리가 씩씩거린다. 알고 보니 신입 시절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단다. 작은 행동 하나부터 뭐든지 해내려는 성격까지, 2년 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후배를 보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뿌듯함과 고마움을 내비친다.

### 말하지 않았던 마음을 나누다

도심 속 세계여행에 폭 빠져 바람이 차가운 것도 몰랐다. 못다 한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던 시간.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원샷하고, 남은 잔에 설탕을 비벼 먹는 강영한 사우를 보며 박성민 사우가 태연하게 이야기한다.

“선배는 원래 이렇게 커피를 즐겨요. 저희 팀에 이런 취향을 가진 분도 여럿이구요.”

“이 친구는 카페에 가면 항상 새로운 메뉴를 선택해요. 도전정신이 강한 거겠죠? 하하.”

앞다투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모습이 선후배 사이를 넘어 친형제 같다. 단합이 잘 되는 유럽팀 내에서도 두 사람이 특히 돈독한 건, 의욕 넘치는 박성민 사우의 끝없는 질문 공세에도 쓰러지지 않고 답해준 강영한 사우의 끈기 때문이란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선배를 보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박성민 사우.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고마움을 나누는 이들에겐 선후배 사이를 넘어선 애정이 가득하다.



그의 말에 얼굴이 발그레해진 강영한 사우가 말을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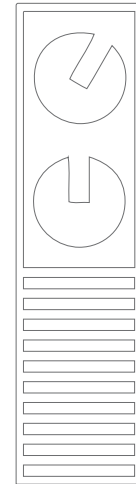
“성민 씨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 시도한 후, 정말 안 되면 다른 해결책을 논의하러 와요. 늘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도 똑 부러지게 일하니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죠.”

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평소 침묵이 칭찬이겠거니 하며 지내온 두 사람이어서일까. 마음속에 간직하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려니 새삼 쑥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모양이다.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피어나는 웃음이 훈훈하게 퍼진다. 오늘 하루 함께 나눈 즐거움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선후배의 끈끈함을 이어나가길, 세계로 뻗어 가는 넥센타이어의 중심에 언제나 그들이 있길 응원한다.📞





Hello NEXEN



크리에이티브한 광고 포스터

# 한 번에 알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평범한 광고는 가라. 단 한 번의 노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광고 포스터를 소개한다.

1

## 프링글스

### Hot&Spicy, Rice Infusions

북극에 사는 남자는 어느 날 프링글스의 Hot&Spicy를 접한다. 한참을 먹다가 어딘가 허전한 기분에 고개를 들어보니 매운맛의 열기에 이글루가 녹아버렸다?! 또 다른 광고는 프링글스에 삼각 김밥처럼 김을 붙여 쌀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소 황당한 설정이지만 한 장의 지면광고로 새로 나온 맛을 설명하기에는 이보다 더 기발할 수 없다.

2

## 탈모방지 샴푸 Pantene

위생이 필수 공간인 수술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만 탱글탱글한 그녀의 머릿결에 눈이 가는 것은 사실. '무슨 광고지?'라는 생각이 들 무렵 상단에 있는 카피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바로 'Hair fall control(탈모방지)' 샴푸임을 알리는 광고였던 것. 찰랑거리는 모발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강력한 탈모방지까지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글  
한수빈

4

## 섬유유연제 Softlan Ul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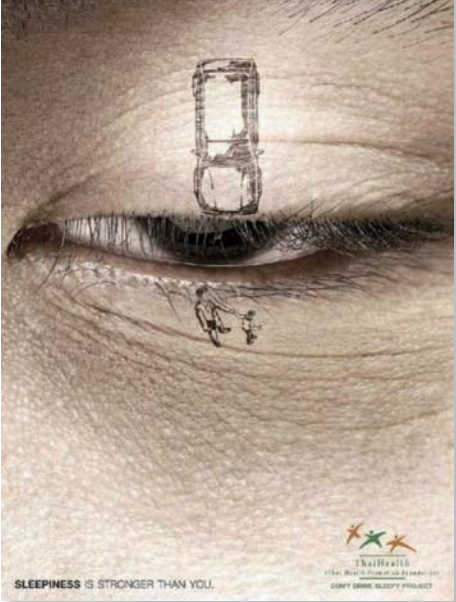
경기에 집중해야 할 레슬링 선수가 황홀한 표정으로 상대 선수를 꼭 끌어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섬유유연제 Softlan Ultra의 광고 포스터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을 운동복도 향기롭고 부드러운 옷감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린다. 광고하는 제품이 섬유유연제임을 아는 순간 '얼마나 좋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포스터.

5

## IKEA 무료배송 서비스

스웨덴 조립식 가구의 대명사인 IKEA는 서민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제품을 제공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무거운 가구의 특성상 배송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예뻐도 사기가 꺼려지는 법. 이 포스터는 독일 IKEA의 무료배송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로 작은 소품부터 큰 가구에 이르기까지 집을 통째로 옮겨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6



6

##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게슴츠레 뜯은 눈, 자꾸만 내려오는 눈꺼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봐도 졸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태국건강증진재단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공익 광고 '졸음은 당신보다 강하다(Sleepiness is stronger than you)'를 발표했다. 포스터에는 반쯤 감겨 있는 눈꺼풀에는 자동차를, 눈 밑에는 손을 잡고 가는 어른과 아이를 그려 눈을 감는 순간 사고가 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㉞



# 이것만큼은 꼭 발명되었으면 좋겠다?!

SF 영화 속 미래는 몹시도 기발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순간이동 하는 기계,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알약 등,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역시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품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명은 생활 속 불편함에서 피어오른 상상인 것 같습니다. 시간 혹은 비만과의 전쟁에서 식사 대용 알약을 떠올리고,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으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순간이동 기계를 갈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사보담당자는 아침마다 자동으로 메이크업해주는 기계가 발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렇다면 넥센 사우 여러분들은 어떤 발명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기발한 발명품.  
<헬로우넥센>에서 마음껏 펼쳐보세요!



발열 스노우 타이어

먹으면 8~9시간 동안 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약

자동으로 고기를 구워주고 먹여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잘못 굽는 관계로 ㅋㅋ

누워있으면 자동으로 때 밀어주는 캡슐형 기계

연말정산 자동입력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사팀  
담당자는 기본 천 명이 넘는 직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각종 기타 내역을 오로지 손으로! 직접! 하나  
하나! 한 땀 한 땀! 입력해야 합니다. 야근도 야근이지  
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ㅠㅠ

둘레와 폭이 변하는 타이어 림

빛의 대로 헤어스타일이 연출되는 자동 헤어 빗

자동으로 타이어 마모량 점검 및 내구성 확인 가능한  
기능이 발명되면 사고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손목시계와  
그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알약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자가용 비행기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ex. 대머리 방지약)

저 대신 돈 벌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고만 살게.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싶으면 약품이 투여되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

영화 속 여러 문화 및 환경을 캡슐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시스템 기계

여자친구

잔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기계가 발명되었으면 좋  
겠어요~ 귀에다 보청기처럼 넣어놓으면 잔소리  
혹은 성난 목소리도 듣기 좋은 성우 목소리로 전환  
되게요. 뮤트 기능으로 아예 안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보이는 사람의 성향, 나이, 이름, 범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캔 콘택트렌즈





행여

## 압출공정

창녕공장의 압출공정은 네 개의 고무 투입구로 구성된 쿼드로플렉스로, 동시에 네 가지 트레드・사이드월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 무인 생산 시스템과 게이지 자동컨트롤 등 최첨단 설비로 환경인자 및 작업자에 의한 품질 편차를 해소하였습니다.





벚꽃, 개나리꽃,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청주 수암골

계절의 여왕이 담벼락에 그려졌다. 왕관과 망토는 없다. 하지만 활짝 웃는 미소만큼은 미스코리아 뽐친다. 거추장스러운 외투는 벗어놓자. 양지바른 평상에 앉아 봄바람을 맞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골목길을 지나 우암산 자락을 따라 걸어가면 벚꽃, 개나리꽃이 웃음꽃을 터트리게 한다.





## 90년대 터프가이 최민수가 달렸다

청주IC로 진입해서 도심으로 들어섰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다. 하늘을 뿔뿔하게 가려버린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가로수 때문이다. 1940년대부터 심기 시작해 지금은 무려 1,500여 그루나 되는 가로수 거리는 6km에 달한다. 특히 봄부터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초록 물결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왕복 4차선 도로에 빼곡하게 심어진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갓길에 주차하고 횡단보도 중앙에 서봤다. 아스팔트 도로에 이런 길이 있다는 자체가 감동이다. 1990년대 일명 '귀가시계'라 불렸던 드라마 <모래시계>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당시 최고의 터프가이 최민수가 오토바이에 고현정을 태우고 낙엽을 휘날리며 달리던 가로수 길.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방송이 나간 뒤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가 떼를 지어 이곳을 질주했다고 한다. 가을엔 낙엽과 함께하는 낭만이 그득하다면 봄엔 싱그러운 초록의 매력이 넘친다.

### Info 청주 봄꽃여행 따라잡기

무심천 체육공원 → 수암골 벽화마을 → 영광이네 국숫집 → 수암골 전망대 → 우암산 벚꽃길 → 청주박물관 → 상당산성 → 청주고인쇄박물관 → 청주 가로수길 → 푸르미 환경공원

문의 청주시청 문화관광과 043-200-2232~4, tour.cjcity.net

## 발길이 멈추듯 시간도 멈춰

이어 도착한 곳은 수암골 벽화마을. 골목길이 좁고 가파르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비탈진 언덕에 주차장이 있다. 흔히 '수암골'이라 불리는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자리한 달동네이다. 달동네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다. 뜻풀이는 정말 낭만적이지만 그 말엔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들의 고된 삶이 마을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개발에 밀려 청주를 대표하는 달동네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 없는 회색의 시멘트로 치장한 채 무심한 시간을 보내던 2007년, 청주의 예술단체들이 '추억의 골목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벽화를 그렸다. 칙칙하고 암울해 보이던 마을에 밝고 해학적인 표정의 벽화가 그려졌다. 정감 어린 그림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웃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소지섭, 신현준 주연의 드라마 <카인과 아벨>, 국민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제빵왕 김탁구>가 이곳에서 촬영된 이후 수암골은 더 이상 잊혀진 달동네가 아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닌다. 특히 젊은 연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수암골 벽화는 익살스럽고 재기발랄하다. 아이 그림이 많은 것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앞니가 빠진 채 함박웃음을 웃고 있는 아이, 수암상회 옆에서 하회탈처럼 웃고 있는 아이, 고래와 함께 자전거 타는 아이는 당장 그림 밖으로 뛰어 나올 것만 같다.

### 출출할 때 여기 어때?

상당집(043-252-3291)은 청주시민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다. 워낙 손님이 많아 합석은 기본, 100% 콩으로 만든 두부와 비지장, 청국장인 인기다. 셀프로 제공되는 손두부는 몇 번을 먹어도 눈치 주는 일이 없다. 막걸리 안주로는 묵과 파전이 좋다. 드라마 <영광의 재인> 촬영장으로 알려진 영광이네(043-224-2332)는 국수와 찜뽕이 맛있다. 찜뽕은 매콤한 편이며 해물이 한가득 올라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진다. 김탁구 보리빵과 단팥빵, 야채 고로케 등도 간식으로 편할 만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에 목줄이 매달린 강아지 그림이 있다. 평면적인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기발함까지 더했다. 화사한 꽃밭을 그대로 옮겨놓은 유화는 생동감이 넘친다. 70년대를 추억하게 하는 새마을운동 로고,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화장실, 타일로 만든 벽화 등 모두 40여 가지가 넘는다.

수암골 전망대에 오르면 청주 시내와 한눈에 들어온다. 달동네 최고의 혜택은 조망권이 아닐까. 해가 지고 나면 탁트인 시야로 변화한 청주 시내와 수암골이 조명을 밝힌다. 수암골의 가로등 불빛은 먼발치에 있는 고층아파트에 비해 외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따스함만큼은 지지 않는다.





## 골목길이 변하고 있다

정겹던 수암골이 변하고 있다. 마을 진입로는 물론이고 마을을 조금 비켜선 골목길에도 관광객을 위한 카페와 식당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고급스러운 테마형 가게가 대부분이다. 시설과 메뉴 등 모든 면에서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다수 관광객이 외지인들이 차려놓은 가게에서 돈을 쓰고 간다는 말에 마음 한편이 씁쓸해진다.

마을 뒤에는 354m의 나지막한 우암산이 바람막이를 한다. 도심과 가깝고 산세가 완만해 주말이면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꽤 찾는다. 특히 우암산에서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생태통로 주변 3.5km 구간에는 3월에는 개나리, 4월에는 벚꽃, 5월에는 분홍색의 영산홍이 화사하게 피어

난다. 우암산과 상당산성을 잇는 우암산 생태통로는 야생동물들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다. 산책 코스로도 손색이 없어 봄철에는 청주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⑩

### Tip 함께하면 즐거운 Leisure

청주 여행에서 청남대를 빼놓을 수 없다.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의미를 가진 청남대는 1983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이용되었다. 오랫동안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지켜져 온 덕에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조경수 100종, 52,000여 그루와 야생화 130종 등이 청남대의 자랑거리이다. 각종 테마에 따라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있어 가족 나들이,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인데다 매년 4월~5월경이면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도 개최된다.

문의 043-220-6412~4, chnam.cb21.net





# 행복한 강태공의 ‘낚시학개론’

이른 아침,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 선착장에서 출조에 나선 한 남자를 만났다. 풍랑주의보 소식에도 불구하고 새벽밥을 먹고 땀하니 달려왔을 정도로 낚시를 좋아한다는 김기용 사우.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짜릿한 손맛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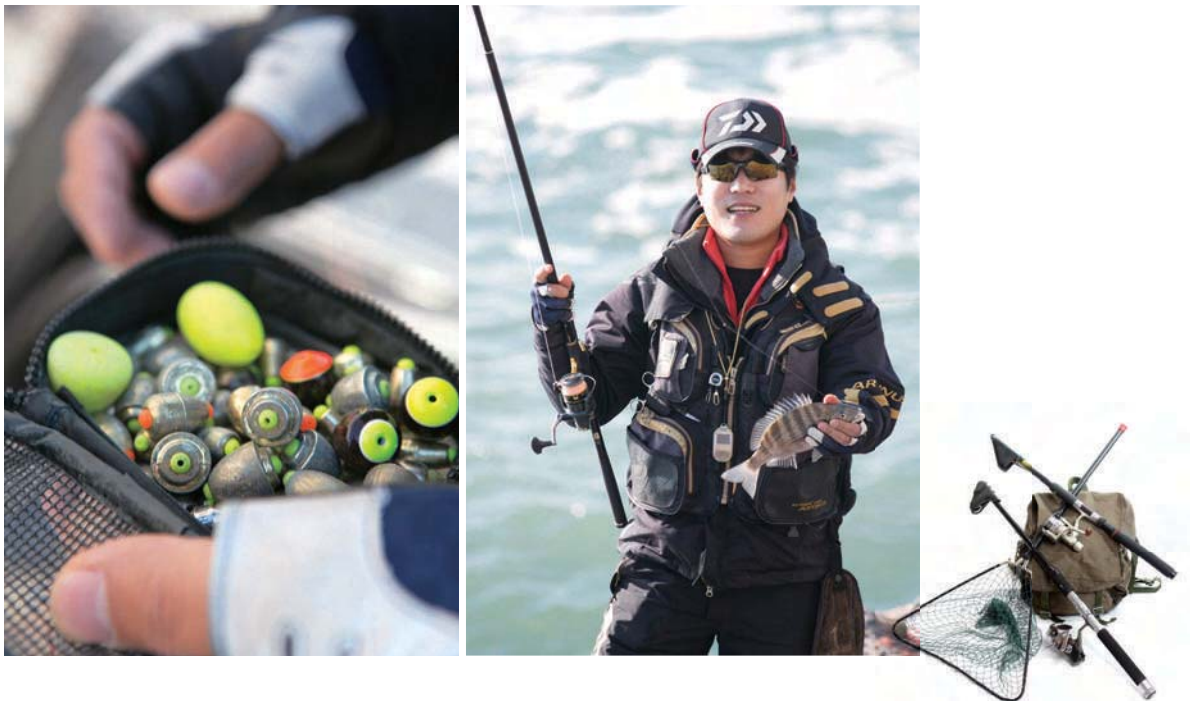
김기용 사우는 몇 해 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낚시의 매력에 푹 빠져 지금까지도 여전히 삶의 활력소로 여기고 있다.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건 사내 낚시 동호회에 가입한 2년 전부터다. 마침 이날도 ‘넥센피싱클럽’ 회원 몇몇과 함께 나선 참이었다.

“교대 근무 때문에 단체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함께 출조를 나섭니다.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과 어울려 즐기는 것도 나름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애정을 듬뿍 쏟고 있다는 동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일행을 태워 나갈 배가 신호를 보내왔다. 이른 아침 배에 오른 동호회 회원들 모두 먼 길을 달려온 터라 피곤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히려 상쾌한 표정이다. 뱃머리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이 이들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가덕도 바다 한가운데 갯바위. 수심과 물때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목적지다. 김기용 사우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섬주섬 장비를 펼치더니 이내 물고기와와의 한판 대결을 위한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늘의 주요 공략 어종은 감성돔. 살이 차지고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라 한우와 바꾸기도 거부한다는 고급 어종이다. 물길의 기세와 심리전을 펼쳐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다의 선물이라랄까.

낚시 마니아  
제품평가팀 김기용 사우







바다 한가운데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어제는 그렇게 바람이 세차더니 오늘은 또 잔잔하네요. 물의 흐름에 따라 고기의 이동도 달라지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마음을 잘 헤아려 봐야지요.”

#### 바쁜 일상의 쉼표, 낚시

낚시를 시작한 지 20여 분쯤 흘렀을까. 슬슬 지루함과 조바심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낚시를 가만히 앉아서 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별다른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시장에 가면 회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욱 지루할 터. 하지만 김기용 사우는 기다리는 시간과 물고기를 잡고 못 잡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고기를 낚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입질이 없어도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자연스레 힐링이 된다는 것. “저에게 낚시란 행복의 수단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또 머리 식히는 데 낚시만 한 게 없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업무와 가족의 대소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를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는 낚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되어 조금만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확 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전하는 깊은 감동은 다른 취미생활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라고.

#### ‘어복(魚福)’ 있는 남자의 짜릿한 손맛은 계속된다

“물었다!!!”

찌를 한참 바라보고 있던 김기용 사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낚싯대를 움켜쥐었다. 어느새 눈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생선 한 마리. 시샘 반 부러움 반, 모두의 시선이 생선 쪽으로 집중됐다. 은빛 갑옷을 두른 듯한 화려한 비늘, 곧추세운

등지느러미....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감성돔이 틀림없었다! 어쩔 주인공인 사우에게 딱 잡혀주다니, 고놈 참 센스 있는 고기일세~ “온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운이 역세계 좋은 날이네요. 사실 장비나 낚시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운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면에선 제가 어복(魚福)이 있는 편이지요. 하하하!” 가느다란 낚싯줄을 사이에 두고 벌인 물고기와 낚시의 3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 있겠다며 한껏 목청을 높였다.

“잔잔하던 찌가 천천히 솟아오를 때의 감동이 있어요. 흔히 ‘눈맛’ 혹은 ‘찌맛’이라고 하지요. 이어서 걸려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채는 기분은 ‘손맛’이라고 합니다. ‘입맛’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연산이라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곧 낚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 다가온다. 낚시의 매력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다는 김기용 사우. 전국의 고기를 다 낚고 다닐 것이라는 그의 다음 낚시터는 통영 옥지도다.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더 큰 월척을, 더 큰 행복을 낚을 수 있기를! <sup>㉞</sup>







총무1팀 김철홍 사우 부부의 무스토이 체험

## 인형보다 사랑스러운 그대 그리고 나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아내의 생일에 '가족 인형 만들기'라는  
색다른 선물을 준비한 김철홍 사우. 인형 위로 깨소금이 쏟아졌던  
이들 부부의 체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깨소금 냄새 폴폴~ 신혼부부 납시오

체험 카페 안으로 손을 꼭 잡은 선남선녀 커플이 들어섰다. 오늘의 주인공 김철홍 사우와 그의 아내 박은주 씨다.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달콤한 눈빛을 나누고 '자기야'라는 정겨운 호칭을 부르는 통에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묻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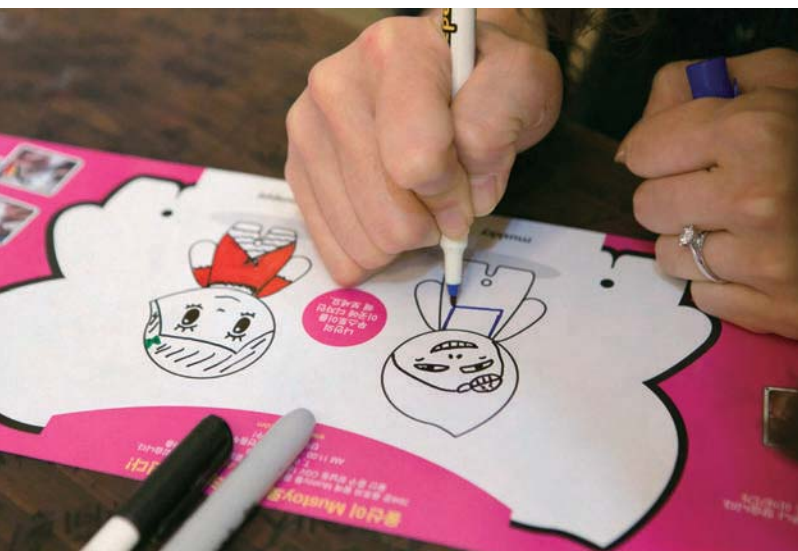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죠. 웃는 모습이 어찌나 환하고 예뻐던지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첫날부터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애정공세를 펼쳤어요.”  
첫 만남 이후 아내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김철홍 사우. 그의 진심이 통했으니 결혼까지 골인한 것일 테다. 그렇다면 아내는 김철홍 사우의 어떤 면에 이끌린 걸까?

“무뚝뚝할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이해심도 많고, 잘 챙겨주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보통 자기와 반대 성격의 상대에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마침 박은주 씨가 다니는 회사가 넥센타이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퇴근 후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키워나간 두 사람은 드디어 지난해 가을,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강단 있는 말투에서 든든함이 느껴지는 김철홍 사우와 외락 안아주고플 만큼 사랑스러운 눈웃음의 소유자 아내 박은주 씨,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고, 체험 시작도 전부터 배가 다 아플 지경이다.





“꼭 아들이어야 해? 나는 딸이 더 좋은데. 한방에 둘을 낳으면 되려나? 호호호!”  
오랜 고민 끝 가족계획에 따라 인형 세 개를 고른 부부는 열심히 관찰한 서로의 모습을 종이에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색을 칠할지 미리 종이 위에 그려보는 것이다. 커플티를 입혀야겠다는 아내가 먼저 스케치에 돌입했다.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스케치하는 솜씨가 제법 근사하다. 김철홍 사주의 종이 위에도 귀엽고 예쁜 아내의 모습이 서서히 그려진다.  
“어머~ 자기야 나 리본 핀도 꽃았어. 머리도, 손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줘요.”  
애교만점 아내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묵묵히도 잘 받아주는 김철홍 사주. 그는 아내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자상한 남편임에 틀림없었다.

### 아기자기하고 예쁜 추억을 완성하다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무스토이 인형 위에 색을 칠할 차례.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잠시 거둔 채 각자의 인형 채색에 열중한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색을 칠하고, 알코올로 지우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드디어 이들 부부만의 무스토이가 완성되었다. 탁자에 나란히 올려놓은 세 인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두 사람. 하얀도자기 인형이 가족의 얼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확인한 모양이다.  
“생각도 못했는데, 생일이라고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에도 결혼한 지 백일이라고 챙겨주더니 한 번씩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하얀 도자기 인형이 가족의 얼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확인한 두 사람.

### 그대는 피카소, 나는 고흐!

#### 우리는 아티스트 부부

오늘 이들 부부는 직접 인형을 디자인하는 ‘무스토이’를 체험하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자기 인형이라는 의미인 ‘無’, 스케치(Sketch)를 하면서 각자의 스토리(Story)를 담는다는 뜻에서 각 단어의 앞글자인 ‘S’를 따서 ‘無’s Toy’라는 이름이 붙은 체험 이벤트다. 하얀도자기 인형 위에 유성펜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채색을 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인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카페 안에 온갖 아기자기한 인형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던 두 사람은 “잘 만들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크기와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도자 인형들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부부의 대화를 듣자니 절로 웃음이 난다.  
“곧 아이가 생길 테니 엄마, 아빠, 아들 인형을 하나씩 고르는 게 좋겠어.”



“아내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줘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하고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도 안 챙겨주시던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어서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이지요.”  
완성된 가족 인형을 앞에 두고 기념 촬영을 하는 두 사람의 얼굴엔 하트가 만발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무스토이 인형처럼,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곱고 예쁜 추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㉞



서울사무소 사우 추천 맛집

# 딱 한잔만 하고 가자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월급쟁이의 하루는 고단하기만 하다. 이런 지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함께 고생하는 동료뿐. 퇴근길 잠시 둘러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서울사무소 사우들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향해보자.



미주팀 박성신 사우

매콤달콤 알싸한 그 맛  
5구역 쭈꾸미

스트레스가 쌓여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매운 음식이 끌리는 날에는 5구역 쭈꾸미를 찾아보자. 매운맛이 조절되는 쭈꾸미 정식과 먹을수록 혀끝이 얼얼해지는 철판 쭈꾸미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그만이다. 콩나물을 곁들여 먹는 여느 쭈꾸미집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천사채를 함께 싸먹는데, 고들고들하게 씹히는 식감이 중독성 있다. 갯잎 위에 천사채를 올리고 쌈무, 쭈꾸미, 락교, 양파 소스를 올리면 준비완료. 거기에 매운맛을 달래주는 시원한 묵사발까지 무한 리필되어 쌈 싸먹으랴 묵사발 떠먹으랴 손 실 틈이 없다. 최고의 안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술이 빠질쑈냐. 어두운 실내조명 덕분에 대낮에도 술을 즐기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단 체손님을 위한 널찍한 룸과 흡연실도 마련되어 있어 회식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사우에게 강력 추천한다.



## INFORMATION

메뉴 쭈꾸미 정식 9천 500원, 쭈꾸미 철판 1만 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88 삼익빌딩 지하 1층  
문의 02-522-5960    영업시간 11:30 ~ 23:00



시도 때도 없이 강림하사 거부할 새 없이 영접하고야 마는 '치느님'. 맥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마늘치킨, 간장치킨 등등 그 종류만도 다양하다. 이수역에 위치한 아지트에 가면 이름도 생소한 고추치킨을 맛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해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 손님까지 있을 정도. 튀김 반죽에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어 한입두입 먹다 보면 칼칼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고, 한 번 튀겨낸 뒤 기름을 빼고 다시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아지트에서는 고추치킨 외에도 계절마다 신선한 제철음식을 맛볼 수 있다. 경상도 출신 주인장 내외가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굴과 과메기는 아무 데서나 즐길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 치킨을 다 먹고도 배가 허락한다면 입안 가득 바다 내음을 느껴보자.

## INFORMATION

메뉴 고추치킨, 마늘치킨 1만 5천 원, 생굴, 과메기(계절) 1만 5천 원  
위치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길 32 2층  
문의 02-592-9288    영업시간 14:00 ~ 02:00



남부신유통팀 송현영 사우

담백하고 깔끔한 고추치킨  
아지트



아태팀 이용원 사우

숯불향 가득한 양념갈비  
마포본가

포털 사이트에 '사당역 회식'이라고 검색하면 마포본가가 나올 정도로 인기 회식 장소 중 한 곳이다. 맛도 맛있지만 지하부터 2층까지 좌석이 넉넉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품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고깃집에서는 삼겹살도 함께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오로지 양념갈비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에 고기를 재운 뒤 충분히 숙성시켜 돼지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그윽한 숯불향이 풍미를 더해준다. 고기가 조금 남았을 무렵 마포본가의 자랑인 냉면도 꼭 주문하자. 살얼음 동동 떠 있는 냉면과 갈비의 조합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갈비 1인분을 더 시킬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 INFORMATION

메뉴 마포돼지갈비 1인분 1만 2천 원, 생 통갈비살 1인분 1만 8천 원, 냉면 5천 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4길 15-3  
문의 02-525-5392    영업시간 11:30 ~ 22:30







영업관리팀 한창운 과장

포장마차 그 오뎅이 아니야~

## 서래오뎅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뜨끈한 요리가 생각나기 마련. 오픈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서래오뎅은 갯가지 재료를 넣고 4시간 동안 우려낸 어묵국물이 일품인 집이다. 아무리 국물이 맛있어도 메인 요리인 어묵이 맛없다면 말짱 도루묵. 부산 공장에서 직접 공급 받는 어묵은 통통함과 쫄깃함의 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8가지나 되는 종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간장 소스에 콕 찍어서 먹다보면 어느새 자신의 옆에 빈 꼬치가 산을 이루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다. 손님들이 어묵 외에도 쉐 새 없이 주문하는 메뉴가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안 먹고 가면 섭섭하다는 해물떡볶이. 갯가지 해산물과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감칠맛이 끝내주는 떡볶이는 안주로도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 INFORMATION

메뉴 기본 오뎅 1천 500원, 곤약, 소라 2천 원, 해물떡볶이 1만 5천 원, 고로케 1만 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26길 22  
문의 02-591-5505    영업시간 18:00 ~ 02:00



중아팀 김은 과장 / 아태팀 박지상 사우

양념 반 그냥 반

## 송이족발

배고픈 밤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대표 야식 메뉴 족발. 윤기 찰찰 흐르는 매끈한 껍질과 아들아들한 살코기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이 가게 만든다. 족발집이라고 하면 허름한 식당에서 언제부터 썼을지 모를 식기에 족발을 먹는 이미지지만 송이족발은 카페같이 깔끔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실제로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블루 레몬에이드도 판매하고 있는데 상큼한 그 맛이 의외로 족발과 어울린다고, 소, 중, 대 등 크기 구별 없이 앞다리 살, 뒷다리 살만 구분해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 기호에 따라 양념 반, 기본 살코기 반으로도 주문할 수 있으니 서로 원하는 메뉴가 달라 싸울 일은 없겠다.

### INFORMATION

메뉴 기본 앞다리 3만 3천 원, 뒷다리 3만 원, 양념·기본 반반 앞다리 3만 5천 원, 뒷다리 3만 2천 원, 레몬에이드 4천 5백 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66    문의 02-532-9491  
영업시간 월~토요일 16:00 ~ 03:00, 일요일 14:00 ~ 22:00



인사기획팀 김한수 사우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

## 베이스캠프 164

상큼한 민트색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베이스캠프 164는 '도심 속의 캠핑'이라는 테마로 꾸며진 이색 주점이다. 매장에 들어서면 의자며 식기, 테이블까지 작은 소품 하나에서도 캠핑장 느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어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될 듯하다. 특히 야외테라스는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나 만석이기 때문에 이왕 즐길 바에야 조금 일찍 가도록 하자. 17가지의 향신료를 발라 닭 냄새가 없는 비어캔 치킨은 직원이 직접 살을 발라주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인기 만점. 삼겹살, 훈제오리, 소시지, 파인애플 등이 포함된 그릴세트는 남자 두세 명이 먹어도 거뜬해 저녁밥을 따로 먹고 가지 않아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 4월 한 달 동안 넥센타이어 사우만을 위해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 하단의 쿠폰과 명함을 지참해 꼭 방문해보길.👉

### INFORMATION

메뉴 비어캔 치킨 1만 6천 원, 그릴세트 3만 4천 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64  
문의 02-532-7996  
영업시간 16:00 ~ 05:00



**베이스캠프 164 할인 쿠폰**  
1. 비어캔 치킨 9,500원  
2. 비어캔 치킨 주문 시 시즌당 감자튀김 서비스  
3. 그릴세트 주문 시 그릴소시지 서비스  
· 기간: ~4월 30일  
· 대상: 쿠폰과 명함을 소지한 넥센타이어 사우



봄철 불청객 이기는 생활 수칙

## 굿바이 춘곤증!

따뜻한 봄기운에 오후만 되면 마법이라도 걸린 듯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초대 받지 않은 봄철 손님, 춘곤증 덕분이다. 이럴 땐 식생활과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한결 나아진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이, 000 씨!”

팀장님의 호통에 번쩍 정신이 들어 깨어나 보면 어느새 삼십분이 훌쩍 지나가 있다. 겨우 집으로 와 침대에 누우면 이젠 무슨 경우인지, 정작 잠은 오지 않는다. 겨우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는 푸석푸석, 눈 밑은 다크서클 작렬이다. 도대체 춘곤증, 그 정체가 무엇이기에 봄만 되면 사람을 이리도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 전문가들은 춘곤증의 원인을 겨울 동안 움츠려 있었던 신체가 따뜻한 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호르몬과 중추신경에 자극을 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쌓인 피로가 잠으로 나타난다는 것. 또한 봄철에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겨울철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춘곤증이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

### 맛있는 봄나물로 피로 몰아내기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기운이 솟아날 듯한 각종 봄나물들은 나른한 몸에 봄기운을 불어넣는 일등공신이다. 약간 씹쌀한 맛이 매력적인 달래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

해주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향긋하고 달짝지근한 냉이에는 비타민 A와 단백질과 칼슘, 철분 성분이 많아 춘곤증 예방에 그만이다. 특히 냉이는 끓여도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 살짝 데쳐 먹기에 좋다. 입안에서 퍼지는 씹쌀한 향이 매력적인 두릅은 사포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사포닌은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는 필수

만성피로와 불면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이다. 특히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칼슘은 잠이 잘 오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철분은 권태감과 무력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낮 동안 춘곤증으로 조는 바람에 정작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또 다음날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저녁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 상추, 동굴레차 등의 식품을 섭취해 제 시간에 잠을 푹 자도록 한다.

###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조깅, 자전거, 수영 등 어떤 운동이라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 30분 내외로 가볍게 하되,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

시하도록 한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 춘곤증 예방에 좋다.

###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는다. 만약 조금 늦게 잠이 들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지키도록 한다. 또한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침식사는 하는 것이 좋다.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전 중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점심식사에 과식을 하게 되는데, 과식은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해 뇌로 가는 혈액량과 산소 공급량을 줄여 식후 졸음을 몰고 온다.

###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외부

직장인의 경우 가능한 정신이 쉼없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춘곤증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에는 외부에서 일을 하도록 스케줄을 잡는다. 스케줄 조절이 불가능하고 잠까지 쏟아진다면 점심 식사를 끝낸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 약 20분 정도 낮잠을 자도록 한다. 잠깐의 휴식이 피로를 풀어줘 오후 시간을 훨씬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단, 20분 이상 잠을 자면 머리가 아프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도록 한다.④

### 춘곤증 물리치는 스트레칭

※ 모델 : 넥센타이어 축구단 PCR파트 문병관 선수



**양손 꼭지 꺾서 밀기**  
양손으로 각지를 꺾서 위, 앞으로 차례로 밀고, 마지막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양손을 뒤로 밀면서 천천히 위로 올린다.

**어깨 스트레칭**  
한쪽 팔로 반대편 허벅지를 잡고 다른 쪽 팔을 곧게 뻗어 기울여 준다.



**허리 비틀기**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두고 오른쪽 몸통을 돌리며 왼팔꿈치로 오른 무릎을 밀어주며 시선은 뒤를 본다.



**엉덩이 스트레칭**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꺾어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인다.



**전신 뻗기**  
앉아서 발끝은 최대한 아래로 밀고 양손은 최대한 위로 뻗어서 전신을 이완시킨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마이네스 통장 탈출 비법

‘만들어만 놓는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다들 쓴다.

나만은 다를 거라고 장담하지만 나 역시 똑같다. 만들어본 사람은 안다. 없으면 아쉬운데 있으면

뭣이 되는 그놈, ‘마이네스 통장’. 뭣이라면 빠져나와야 한다. 잔인한 달 4월, 독하게 마음먹고 뭣에서 벗어나 보자. ‘어떻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마이네스 통장 탈출 비법을 소개한다.



## 마이네스 통장도 빛이다

최고 시청률이 50%에 육박했던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스포일러다. 이름만 보면 인물의 캐릭터가 짐작된다. 무개념 아내 ‘왕수박’과 첫사랑 ‘오순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자가 ‘고민중’인 것처럼.

마이네스 통장은 그러나, 이름이 페이크(가짜)다. 이름만 보면 ‘통장’으로 착각하기에 심상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마이네스 통장은 은행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자유롭게 빌려주는 상품이다. 돈이 생기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대출 상품의 일종이지만 돈을 빌려 쓰고 다시 갚는 것이, 마치 돈을 넣어두고 빼 쓰는 통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네스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이러니 어떤 사람들은 마이네스 통장이 무슨 예금통장인 줄 알고 내 돈처럼 막 쓴다. 마이네스 통장의 한도를 통장 잔고로 착각한다.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은 이자 나가는 게 눈에 밟혀 웬만하면 안 쓰고, 일단 썼다 하면 빨리 갚으려고 한다. 반면, 마이네스 통장 이자는 통장을 매번 체크하지 않는 한 도대체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알기 어렵다. 이자 계산도 복잡하다. 한 번 꺼내쓸 때마다 사용 기간이 제각각이고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한도까지 꽉 채워 써서 이자가 연체되지 않는다면 마이네스 통장을 쓰는지 실감도 안 난다. 마이네스 통장이라는 뭣에 걸린 거다.

하지만, 마이네스 통장도 엄연히 빛이다. 게다가 두 가지 이

유에서 악성이다. 먼저, 같은 신용대출이라도 이자가 더 비싸다. 마이네스 통장은 신용에 따라 일반 신용대출에 가산금리가 붙는다. 보통 은행의 마이네스 통장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적게는 0.5%포인트에서 많게는 4%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은행은 고객이 실제로 마이네스 통장을 쓰건 안 쓰건 대출 한도만큼 돈을 준비해둬야 하므로 그만큼 자금이 묶인다. 신용대출을 해주면 이자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올 텐데, 마이네스 통장은 돈을 쓰지 않을 경우엔 이자 수입이 없으니 은행 입장에서선 이자도 못 받고 대출 한도만큼 돈을 살아줘야 해 손해다. 그래서 이자를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런데도 ‘통장’이라는 이름에 속아, 어떤 이들은 여윌돈이 있으면서도 마이네스 통장을 한도까지 꽉 채워 쓰기도 한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총액은 정해져 있다. 마이네스 통장을 실제로 쓰건 안 쓰건 한도 전체가 대출로 잡힌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마이네스 통장 한도만큼 대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네스 통장에서 100만 원만 썼더라도,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총 대출한도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신용대출로는 4,000만 원까지만 못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마이네스 통장에서 써야 한다. 마이네스 통장 이자가 더 비싸니 쓸데없이 이자를 더 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출 상품의 일종이지만 돈을 빌려 쓰고 다시 갚는 것이,  
마치 돈을 넣어두고 빼 쓰는 통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네스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안 만드는 게 최선, 한도 채우는 건 최악**

마이네스 통장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최선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놔뒀다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먼저, 마이네스 통장이 있으면 저축습관이 무너진다. 월급을 받으면 인생 계획에 따라 적금이나 펀드 등에 쪼개서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마이네스 통장부터 덮어놓고 갚으려 든다. 적금이나 펀드는 뒷전이다. 저축습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니 돈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이네스 통장의 존재 자체가 소비를 쉽게 만든다. 돈이 없으면 아예 꿈도 꾸지 않았으려면, 여차하면 마이네스 통장에서 빼 쓰면 된다는 생각에 서슴없이 '지르고' 만다. 마이네스 통장을 만들 땐 나만은 안 그럴 거라고 자신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한 경로로 소비의 유혹에 굴복해 마이네스 통장의 뒤통에 빠진다. 없으면 최선이지만 이미 있는 걸 어쩌랴. 기왕 있는 마이네스 통장이라면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대출 한도를 꽉 채울 때까지 돈을 꺼내 쓰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출 한도까지 채운 상태에서 이자를 내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나면 20%에 육박하는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를 내야 하는 날에 돈을 집어넣으면 되긴 하지만, 사람의 일인지라 까먹기에 십상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도까지 뽐아 쓰지 않고 10만~20만 원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참고로 이자를 내야 하는 날에 돈이 부족하면 연체가 되고, 첫 한 달까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묻는다. 그

마이네스 통장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최선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놔뒀다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러나 연체 1개월이 넘으면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 마이네스 통장의 이자는 5~10%대 금리로 설정되지만 연체이자는 그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예컨대 마이네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7% 금리로 사용하다 연체했다면 신용도에 따라 15% 안팎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은행마다 이자 결산일도 다르고, 날짜가 아니라 몇째 주 무슨 요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본인 통장의 결제일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연체기록은 3년까지 남고 은행 공동 전산망에 연체자로 등재된다. 개인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마이네스 통장에도 만기가 있다. 본인이 자동 만기 연장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만기연장을 제대로 몰라 연장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고, 나누고, 줄이고... 없애라**

마이네스 통장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다 갚아 버리고 마이네스 통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만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마이네스 통장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다 갚고 없애는 것은 어려우니 단계를 밟아 실행해 보자.



**정리하자**

일단 자신의 자산과 부채가 빠짐없이 담겨있는 리스트를 작성한다. 리스트를 보면 불필요한 보험이나 청약통장이 있을 거다. 이걸 정리해야 한다. 왜냐고? 빚으로 보험료를 내고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과 장기저축 등을 정리하면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저축적립액이 목돈으로 생긴다. 그 목돈으로 우선 마이네스 통장 대출 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이 2,000만 원 있고 마이네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썼다면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통장 잔액부터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대박 신화'가 막을 내린 마당에 돈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청약통장을 깨서 빚을 없애는 게 낫다. 편드도 그렇다. 아무리 장기투자가 답이지만 빚을 떠안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조금씩 추가가 오를 때 환매로 펀드 구조조정을 하고, 보험도 혜택이 중복된 상품을 해지해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나누자**

월급통장과 마이네스 통장을 분리해야 한다. 둘을 합쳐 나선 월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다만, 분리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다. 마이네스 통장을 대신할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둬야 한다. 비상금 통장은 생활비의 3~6배 정도 잔액이면 충분하다. 이걸 나만의 마이네스 통장으로 만들어 채워 넣고 빼 쓰도록 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마이네스 통장이 아니라 비상금 통장을 쓰는, 곧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줄이자**

마이네스 통장의 대출 한도부터 줄여나가도록 한다. 한도의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을 빼 쓰기 쉬워서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마이네스 통장을 없애겠다고 대출 갚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길게 보고 상환계획을 세워 한도부터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좋다. 마이네스 통장을 없애는 게 먼저 아니냐고? 대출 갚기에만 몰인해서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긴급한 상황에선 또 마이네스 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빚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된다. 돈은 벌고 모으고 불려야 재미가 생겨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빚만 갠다가는 빚에 깔려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생활비를 제외한 여윳돈의 절반은 마이네스 통장 잔액을 갚아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인생 계획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없애자**

마이네스 통장 대출을 다 갚았다면 과감히 계좌 자체를 없애야 한다. 급한 경우 돈 빌리기 쉽다는 생각으로 살려두면 다시 뒤통에 걸릴 수 있다. 비상사태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앞서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 있지 않나.<sup>10)</sup>



# 무한 경쟁 시대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한다



‘논다는 것은 곧 낙오’라는 두려움 속에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이라는 족쇄를 차고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놀이로 얻는 창의력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사실!  
잘 노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비법을 알아보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즐거운 시간은 그만큼 빨리 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마음 놓고 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놀이만큼 아이들의 기억력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은 없다. 실제로 체험한 것은 오랜 시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는 놀이를 통해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스스로가 역할을 정해 엄마가 되어보기도 하고 아빠가 되어보기도 하면서 어른 흉내를 낸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과연 놀이가 무의식중에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몇 년 전 엄마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EBS <다큐프라임> ‘놀이의 반란’ 편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을 총 세 집단으로 나누어

놀이에 관한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집단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놀이를 ‘지정’해주었고, 두 번째 집단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특정한 놀이를 ‘권유’했으며, 세 번째 집단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자유’를 주었다. 놀이가 시작되고 20분 후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놀이를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놀이를 지정해준 집단과 권유한 집단의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반면 처음부터 자유롭게 놀았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놀이에 집중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 아이들은 이른바 ‘가짜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짜놀이는 아이의 창의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립심을 길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한발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잘 노는 아이를 만드는 4가지 법칙



01

### 놀이에 동기와 목적 부여는 금물

한참 찰흙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묻는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 뭘 만들 거야?” 그러나 아이는 왜 자기가 찰흙을 만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목적을 묻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집중력을 해칠 뿐이다.

02

### 질문과 대화의 차이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할수록 아이는 놀이의 주도권을 엄마에게 빼앗기게 된다. 아이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토끼는 어떻게 뿔까?” “토끼가 영어로 뭐였지?”처럼 맥을 끊는 질문보다는 아이가 하는 말에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아이가 놀이를 하는 동안 가만히 지켜봐주는 여유까지 가진다면 금상첨화이다.

03

### 완제품 보다는 도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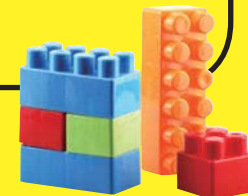
이미 다 만들어진 장난감은 아이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만약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면 종이나 가위, 크레파스같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자. 장난감을 만드는 동안 끊임없이 아이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지에 대해 상상하게 되고 다 만들었을 때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04

### 놀이는 보상이 아니다

엄마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한 보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자기유학이 아닌 공부하는 중간 잠깐의 쉬는 시간으로 인식한다. 놀이를 할 때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하자. 무엇보다 목적 없는 즐거움을 찾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⑩

아이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한발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 마이엔펠트

#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찾아서

스위스 마이엔펠트를 달리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마을 곳곳에 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동화적인  
이미지가 잊혀진 꿈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붉은 지붕, 꽃으로 장식된 거리,  
석조 분수대. 딱 동화 속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통통한 볼에 발그레한 홍조가 매력적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 모르긴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스인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1880년 요한나 슈피리(Johanna Spyri)라는 여류작가를 통해 동화책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출간되었고, 일본에선 TV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제작되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알프스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하이디가 밝고 착하게 자라고, 클라세 박사가 슬픔을 이겨내고, 클라라가 건강을 되찾은 데에는 알프스의 힘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자연의 힘! 요한나 슈피리는 이러한 배경으로 마이엔펠트를 선택했다.

취리히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달리면 알프스 산맥의 라인 계곡 오른쪽에 자리한 시골마을 마이엔펠트에 도착한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도로로 접어들면 보이는 것은 온통 초록, 초록색 뿐. 그렇게 얼마간 달려 마이엔펠트에 도착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도 등장한 풍경을 지나게 된다. 붉은 지붕을 얹은 건물들, 꽃으로 장식된 거리, 가느다란 물줄기를 뿜는 석조 분수대. 딱 동화 속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면 광활한 포도밭이 나타난다. 와인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여름철이면 싱그러운 포도밭이 마을 주변을 가득 채운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잘 익은 포도송이는 볼 수 없었지만 초록잎으로 가득한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포도밭과 숲길을 달리면 얼마 후 레스토랑과 주차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5분 정도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하이디 도르프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하이디의 집을 상상해서 만든 하이디 박물관, 매표소 겸 기념품점, 그리고 닭과 염소들이 노니는 작은 농장이 자리해 있다.

하이디 박물관은 하이디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매우 실감나게 꾸며놓았다. 1층에는 포도주와 치즈 등을 보관하는 식량창고가 있고, 2층에는 부엌 겸 식당과 침실



2개, 3층에는 매튜 할아버지의 작업실과 하이디의 침실 등이 있다. 하이디가 실제로 산 곳은 아니지만 의외의 즐거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투박한 목재가구, 독특한 재래식 화장실 등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전통 화로에는 빵이 올려져 있고, 스토브에는 볶다만 음식, 옷장에는 옷이 있어 마치 10분 전까지도 하이디가 있었던 것만 같았다.

마이엔펠트는 알프스의 자연과 더불어 하이디의 동심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드넓은 목초지와 포도밭, 작지만 사랑스런 집들이 조화롭게 뒤섞인 채로 알프스 산들에 둘러싸인 이곳에 정말로 하이디가 있을 것만 같았다.

“하이디~~”

하이디 박물관 앞을 가득 채웠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 50~60대의 나이임에도 어린 아이처럼 놀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서 하이디의 순수했던 동심이 살며시 떠올랐다.⑩







한글

### 반제품 자동화 창고

창녕공장의 모든 반제품은 전용 대차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현재 \*RFID에 의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선입선출 및 제품 생산 추적 관리를 실시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품질을 최적화하고, 운송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RFID :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지난해 프로야구 시즌 내내 RE개발1팀은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이후 시즌이 끝나고 팀원들의 꺼져가던 열정의 불씨를 되살릴 만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반인도 선수처럼 공을 던지고, 치고, 달려볼 수 있는 '야구체험스토리'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 기다렸다는 듯 18명 전원이 넥센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RE개발1팀. 자, 이제 열정 가득한 그들만의 리그로 출발해볼까!

RE개발1팀 '야구체험스토리' 관람

## 열정 가득! 그들만의 리그



##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스트레스야 가라~!”

“저희 팀이 유독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끔 평일 저녁에 단체 야구 관람을 즐기기도 해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야구를 체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설렘의 기색이 완연했던 팀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은 팀의 수장인 박상욱 팀장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현재 야구 동호회 ‘넥센 다이넥스’의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현장직, 관리직할 것 없이 함께 땀 흘리며 건강한 취미생활을 즐기자는 취지로 팀원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야구를 좋아하는 팀원들답게 역시나 다들 입장하기가 무섭게 타격 연습장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타석은 모두 8개, 투구 속도는 시속 70~130km까지 다양하다. 공이 나오는 곳에는 투수가 직접 공을 던지는 모습의 스크린이 있어 생생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깡! 깡!” 경쾌한 타구음이 연달아 컷전을 때린다. 포즈만으로는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 저리가라다. 사우들은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니 그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으며 입을 모았다. RE개발팀의 꽃, 여사우 네 명도 결코 빼는 법이 없이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집어 들었다. 다소 엉성한 자세로 팀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긴 했지만, 이토록 유쾌한 에너지가 가득한 이들의 평소 친목 도모 방법은 무엇일까.

“팀원을 대부분 음주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에요. 지난 연말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 잔했더니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팀의 막내 사우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랍스타를 먹었다. 옆에 있던 선배 김수천 사우가 “출세했다”며 슬쩍 장난을 건다. 이렇게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어 RE개발팀의 분위기는 언제나 맑음이다.



## 서로가 서로의 코치가 되어

타격 연습장 옆 인조잔디를 깐 특설 돔구장으로 사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글러브와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타자며, 투수, 포수까지 역할 놀이에 폭 빠진 모습이다. “공은 어깨를 이용해서 힘껏 던져야해요. 무릎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저 어때요?” “혹시 클라라 아니에요?” 투구가 익숙지 않은 여사우들에게 투구 자세를 알려주는 팀원들, 그리고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이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웃음이 번진다.

사람은 누구나 코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단점을 보완하는 법이다. RE개발팀의 사우들은 그라운드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서로가 서로에게 코치가 되어주고 있다. 사실 RE개발팀이야 말로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팀이 아니던가. 교체용(RE) 타이어의 구조를 설계하고, 재료를 개발하며, 시제품을 차에 장착해 시험하기도 하는 등 타이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1팀에서 4팀까지 나뉘는데, 이들이 개발하는 타이어는 초고성능(UHP) 타이어다. 특수한 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제품은 분초를 다투기 마련이다. 팀원들 모두 출시 직전까지 ‘딱 한 번만 더 테스트해봤으면’ 싶을 정도로 일정에 쫓긴다. “인력도, 시간도 넉넉지 않아 힘이 부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최근엔 그룹별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서로 자주 의견을 나누니 팀원들 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분위기도 좋아졌지요, 다른 팀에선 우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 지금은 2루로 달려야 할 때!

팀원들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최동원 선수를 추모하는 기념 공간인 불멸의 영웅관이다.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바로 최동원 선수였다는 박 팀장은 최동원 선수의 유니폼과 상패 등 다양한 유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때 저 멀리서 모든 체험관을 정복하고 돌아온 팀원들의 신나는 외침이 들려왔다.

“야구장 하나 통째로 빌려서 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정이 마구 샘솟는데?”

사우들은 막상 마운드 위에 서서 공을 던져보니 보기보다 거리가 멀다면서도 야구 선수가 된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응원만 할 때보다 더 즐거운 모양이다.

야구에서 주자가 2루 베이스를 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루에서 발을 떼어야만 한다. 1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다만 그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도 가능한 것이다. RE개발 1팀 또한 타이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음 스텝을 밟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그라운드에 들어선 RE개발1팀 선수들. 앞으로 이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는 오롯이 팀원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정련파트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봉사

#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 사랑이 꽃피는 책장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정련파트의  
이원희·김현복 조장, 최철영·김용환·  
문성환 사우가 지역센터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전도사로 나섰다.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추억이 될 '책장 만들기'를  
함께했던 그날의 이야기.

## 나랑 책장 만들 사람 여기 모여라

아이가 있는 아빠들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달랐다.  
지역센터의 아이들과 만난 지 겨우 10분도 되지 않아  
서로 껴안은 채 뛰고 구르고 난리법석이다.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는 법을 아는 다섯 아빠들 덕분에  
서먹했던 공기가 단번에 훈훈하게 데워졌다.  
“췌! 잠시 주목. 오늘은 넥센타이어 아저씨들이랑 책장을 만들 거예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우왓! 신나다~”  
먼저 아이들과 사우가 고르게 섞여 3~4명씩 팀을 이루어야 한다.  
파트너 선택권은 온전히 아이들의 몫,  
동심을 사로잡고 싶은 사우들은 자기 PR에 여념이 없다.  
“나랑 같이 만들어요,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할게요, 하하하!”  
“난 힘이 엄청 세다고~ 믿고 선택해줘요.”  
돌아서서 벽을 보고 있는 사우들 뒤로 냉큼 달려가 선 아이들.  
파트너를 확인하곤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다들 마음에 꼭 드는 짝을 만난 모양이다.





### 끼우고 조이고~ 바쁘다 바빠!

아무래도 단순히 돈으로 구입한 물건보다 손길이 조금이라도 닿은 물건에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 정련파트 사우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책장 만들기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은 물론,  
 제 손으로 직접 책장을 만들었다는 뿌듯함까지 선사할 테다.  
 책장은 구성과 이동이 편리한 공간박스 형태로  
 각 부분의 목재를 정확히 끼운 다음 나사로 조립하면 끝.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어긋나도 어색한 모양이 되어버려  
 꽤나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이다.  
 행여나 고사리 같은 손 다칠까, 걱정 가득한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사우가 한 아이에게 공구를 건넸다.  
 “아저씨가 잡고 있을게. 여기 구멍에 나사를 넣고 조금씩 돌려볼래?”  
 친절한 아저씨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이는  
 입술을 아무지게 다물고 천천히 나사를 조여 본다.  
 “정말 이렇게 끼우면 책장이 돼요?” “그럼~ 아저씨 믿고 한 번 해봐!”  
 업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터라 피곤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돕는 사우들.  
 우리가 함께 만든 책장으로 아이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큰 꿈을 키워가겠지?

사우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책장 만들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은 물론,  
 제 손으로 직접 책장을 만들었다는  
 뿌듯함까지 선사할 테다.



### 책장으로 밝고 환해진 공간, 그리고 우리 마음

하나 둘, 책장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마지막 작업까지 완료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창가에 중구난방으로 방치되어 있는  
 책들을 보기 좋게 꽂기 시작한다.  
 사이사이 예쁜 소품까지 곁들이자 공간 분위기가 한층 산뜻하게 바뀌었다.  
 밝고 환해진 이곳만큼 함께 땀 흘린 모두의 마음까지 환해진 듯하다.  
 서둘러 책장을 정리하고 이어진 간식 타임,  
 힘든 작업을 끝낸 뒤 아이들과 나눠 먹은 과일은 어느 때보다 꿀맛이다.  
 다들 고생한 각자의 파트너에게 한입이라도 더 먹이려 야단법석이다.  
 “교대로 근무하느라 봉사활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생각만 하다가 나서진 못했는데,  
 사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사우들.  
 우려와는 달리 씩씩하고 밝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뿐이란다.  
 꼭 다시 만나 함께 신나게 뛰어 놀 그 날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꼭 지금처럼 밝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㉞





# Dear

## 아들, 너에게로 보낸다

달음박질하는 시간을 붙잡아



계절은 그리움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차가운 거리 별빛 따라 걸으며 너의 이름을 불러 봤다. 환하게 첫 휴가 오는 아들 맞이하려고 퇴근길 꽃집에 들러 핑크 장미 한 다발 샀다. 먼 마을 불빛은 산 아래서 따뜻하게 살아나지만, 어둠은 왜 슬퍼 보일까. 왜 어두워지고 나서 야달빛은 저토록 곱단 말인가. 너도 나처럼 찬바람 가득한 밤하늘 바라보며 달이 구름 속에 들 때 울었는지 궁금했다. 휴가를 나온 너와 함께 맘껏 밝은 달빛으로 향하고 싶었다. 웅크린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히는 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달빛을 나누어 준다. 낙엽 구르는 소리도 어둠 뒤에 숨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바라보는 먼 산, 어둠은 내 몸의 몇 배 크기로 부풀었다. 하루의 마지막은 언제나 어둠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서야 끝이 난다.

이들의 첫 휴가. 오전 여덟 시에 출발하면 네 시에 도착하는 긴 시간. 강원도 화천에서 출발이다. 하루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자유. 내 삶의 기쁨은 너에게서 시작되었다. 뒤통뒤통 첫걸음마 할 때 온 가족이 숨죽여 그 모습 바라보며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둘 사진엔 아직도 공갈 젓꼭지 물고 둥그란 눈을 생글거리며 웃어주던 기억이 훈장처럼 박혀 있다.

자대배치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고모는 면회 갈 시간이 없다며 땅콩 깨엿을 특별히 주문해 보내왔다. 면회 못 가는 대신 멋진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핑크빛 미니장미를 하얀 화선지로 곱게 포장해서 엿 박스 위에 예쁘게 붙였다. 연애편지 보내듯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다. '장미와 엿'. 그런데 부대 들어가는 소포는 검열을 하느라 네가 받는 데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정성 들여 포장한 장미와 엿이 손상되지 않게 보낼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 며칠이 지났다. 하루 이틀 지나 엿을 두들겨보니 첫날은 흔들리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 녹아 들러붙었는지 꼼짝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받아 본 대대장의 편지가 생

돈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히 생각하기 바란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젊은 청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바란다.

이 글은 창녕공장 생산팀 정련파트 이창호 사원의 박인자 어머니께서 아들의 군 시절을 회상하며 쓴 편지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주관 '2013 대한민국 편지쓰기 대회' 금상을 수상한 작품인 만큼 서정적인 표현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이창호 사원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Letter Box에서 공개합니다.



각나더구나. 모든 장병 가족에게 보낸다는 편지 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전화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인데 흔쾌히 부치라고 하더라. 자신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직접 전달해주겠다고 해 대대장 앞으로 택배를 보냈다. 최고 고위층이 전해준 엿을 받아두고 줄병이 얼마나 놀랐을까. 많은 장정이 달콤한 엿을 나누어 먹고 꿈나라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역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시간은 잠깐이다. 춘삼월 까까머리 소년의 모습으로 화랑 관광버스에 혼자 태워 보내면서 가슴으로 피눈물 흘렸다. 어느 부모인들 다르겠는가. 속으로 울면서도 태연한 척 웃으며 손 흔들었다. 연극처럼 멋지게 이별을 하려고 애써 참았다. 이별에 익숙지 않아 그때 생각하면 가슴 아려온다. 강하게 키우고 싶어 마음 놓고 표현 한 번 해주지 않고 엄하게만 키웠는데, 포상휴가 받아 와서는 자유가 너무 좋아 얼굴이 확 피어 있더니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하던 너. 몇 달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다. 군계 달한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빈방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앉아 있기도 했다. 전국이 영하의 날씨로 얼어붙었다는 일기 예보가 연일 보도 되고 있었다. 면회 한 번 못 가고 미루다 벌써 제대를 해버렸다.

시간은 꿈처럼 빠르게 흘러 평범한 회사원이 된 네가 자랑스롭다. 돈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히 생각하기 바란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젊은 청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바란다. 군에 갔을 때 면회 한 번 못 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단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뒤에서 그림자 마냥 너를 응원한다. 파이팅!!! ㉠

# From

창녕공장 생산팀 정련파트 이창호 엄마  
'박인자' 보냄





## N'FERA AU5, N'FERA RU5 프리미엄 타이어 시대를 열다

하나같이 겹기만 한 타이어에도 등급이 있다. 최근 회전저항 및 제동력을 별도 표시하는 '타이어 등급 표시제'가 시행 중이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의 참고용일 뿐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저항력, 제동력이 뛰어난 데다 연비, 그리고 승차감까지 향상된 제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분을 뛰어넘는 제품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 타이어, 그 이상을 넘어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타이어로 정의하려면 승차감과 저소음 외에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타이어는 통상 풍선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타이어 고무를 부드럽게 해 제동력을 높이면 노면과 마찰이 거세져 효율이 불리하고, 쉽게 닳는다. 반대로 마찰력을 줄이면 효율과 내구성은 향상되는 대신 제동력이 저하되고, 단단한 고무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프리미엄 타이어 제조 기술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넥센타이어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내놓은 N'FERA AU5가 주목을 받는 것도 프리미엄 제품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갖춘 데다 고효율은 물론 내구성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제품력은 'UTQG' 숫자에서도 입증된다. 'UTQG(Uniform Tire Quality Grading)'는 타이어의 마모율을 나타내는 트레드웨어(Treadwear), 마찰력(Traction), 내열성(Temperature)을 표시하는 미국식 등급 평가다. 넥센타이어는 마모율을 나타내는 트레드웨어가 모두 400 이상을 획득해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일반적으로 마모율 숫자는 340~360 사이가 평균으로 알려져 있다. 넥센타이어의 일부 제품은 마모율이 최고 520에 이르기도 했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N'FERA AU5가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미엄 타이어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 개선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도 거두는 셈이다.

### 타이어도 고효율 시대

물론 프리미엄 제품의 단점은 가격이다. 하지만 수명 및 효율 증대로 비용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급 대형 세단에서도 연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것처럼 프리미엄 타이어도 경제성 확보가 곧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넥센타이어의 N'FERA AU5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합리적인 유지비용이다.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

프리미엄 타이어 본래의 장점도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 국내 도로 주행여건에 최적화된 트레드 패턴으로 진동 감소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측면 그루브는 5개의 가변 피치를 기본으로 최적의 면 분할 설계를 통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억제했다. 또 딥플 구조와 비대칭 패턴 적용으로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하고 조종 안정성을 극대화하였다.

앞서 출시한 SUV용 고급 타이어 N'FERA RU5 역시 고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춰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소음을 저감시키고, 승차감, 주행 안정성 등을 프리미엄 수준으로 구현한 건 물론 유지비용 부담



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구현된 최적의 접지 형상과 폴리머·보강재 결합 반응의 새로운 가교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마모를 줄였다. 또 고성능 폴리머 및 실리카를 적용한 고무배합, 최적의 트레드 패턴과 프로파일 설계로 구름저항을 줄여 SUV의 유류비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강점이다.

국내에서도 넥센타이어 프리미엄 타이어의 주목도는 높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3 더 프라우드(THE PROUD)'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4 등과 함께 '주목받는 신상품'에 선정된 일이 대표적이다. '더 프라우드-주목 받는 신상품'은 출시 1년 이내의 이슈가 되는 상품을 선정해 소비자 패널 조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발표된다. 그만큼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체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국내·외 SUV 소유자 20명을 선정해 'N'FERA RU5'를 4주 동안 제공, 소음 및 승차감 리뷰에서 호평을 얻었다.

앞서 말했듯 타이어의 제동력, 승차감, 조향성, 구름 저항 등은 한 쪽을 끌어올리면 다른 성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타이어의 모든 성능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제품군이 모든 장점을 확보한 것은 그만큼 R&D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다는 방증일 것이다.⑩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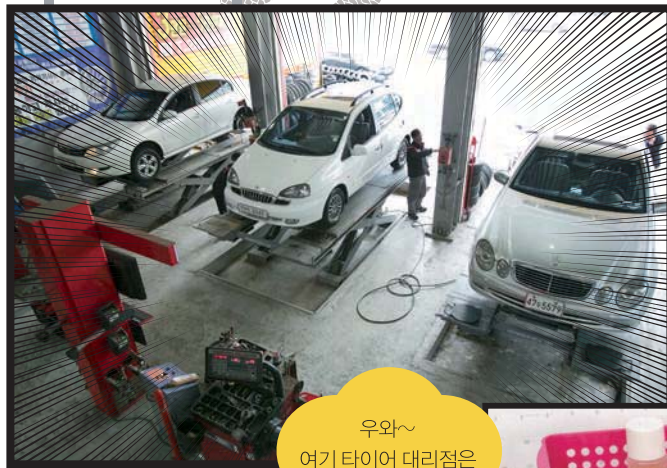
## 타이어뱅크 동광주점

넥세니가 소개하는 타이어뱅크 이야기. 이번에 방문한 매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고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타이어뱅크 동광주점이다.

## 살아있는 3대 성공정신

1. 친절
2. 스피드
3. 스스로 유능해지려고 노력하는 역동적 학습력

## 매장 안



전라남도 광주 문화사거리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동광주점. 고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언제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센스가 !!



저희 매장의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신나는 분위기~! 아싸~!! 웃음 콧방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한 여성 고객님들을 위해 매니큐어도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마세요~

우와~  
여기 타이어 대리점은  
손님이 꼭 찾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 꽃보다 직원

직원  
이광욱

판매와 A/S의 달인!  
분위기 메이커 이광욱입니다.  
동료들과 고객님들이 저로 인해  
웃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아끼지 않겠어요!  
웃다가 눈가에 주름살 생기면  
앙대영~!!

사장  
오길종

안녕하세요. 타이어뱅크  
동광주점 오길종 사장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지만 고객님들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해지는 두 가지 매력을 가진  
사나이죠! 밝고 활기찬 매장을  
만들어주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직원  
신상우

두두두두두두~!!  
언제나 환한 미소를 발사하는  
신상우입니다.  
첫째도 미소!  
둘째도 미소!  
셋째도 미소!  
기분 좋게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직원  
김정석

A/S 전문가  
김정석입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활력소죠.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직원  
김수열

타이어뱅크 동광주점  
막내 김수열입니다. 막내이니  
만큼 각종 매장업무부터 A/S까지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죠.  
그중 고객님들을 재밌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웃으면서  
일하는 게 최고죠!









2014 FA컵 진출



# 넥센타이어 축구단, 이제 시작이다!

봄이라기엔 아직 일렀지만 양산 보조경기장의 공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2014 FA컵 진출을 앞둔 넥센타이어 축구단, 그들이 그라운드 위를 야생마처럼 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 넥센타이어 축구단 주요 성적

- 2006년 ~ 현재 경남 도민체전 양산시 대표 출전(준우승 1회, 3위 4회)
- 2006~2009년 한티배 직장인 축구대회 3년연속 우승
- 2010년 경남도지사가 축구대회 우승
- 2010년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부산, 울산, 경남 권역별 우승
- 2010년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3위
- 2011년 육군참모총장기 축구대회 3위
- 2012년 제4회 고용노동부 장관기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우승
- 2012년 제4회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 3위
- 2012년 제4회 대동령기 전국축구대회 3위
- 2013년 제52회 경남 도민체전 3위
- 2013년 제8회 경남 도지사배 우승
- 2013년 제1회 노동부장관기 전국대회 우승(2014년 FA컵 출전권 획득)
- 2013년 제1회 노동부장관기 전국대회 3위



### ‘하고재비’들이 모인 축구단

넥센타이어 축구단이 제주국제대와 축구부와 친선경기를 하는 날이었다. 찌푸린 하늘을 보며 짐작하건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아이구, 우리는 비가와도 무조건 축구합니다.”

한 선수가 하늘더러 들으라는 듯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도만큼은 프로팀보다 더 프로다워 보이는 넥센타이어 축구단. 1996년, 축구를 사랑하는 사우들이 모여 동호회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우수 선수 영입과 꾸준한 훈련으로 N리그 팀들과 겨루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회사 대표 축구팀으로 자리잡게 된 것. 이제는 양산시 대표로 도민체전에도 출전하여 지역 발전 및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이토록 화려한 프로필에 한 줄을 더 보탬 일이 생겼다. 바로 제1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축구클럽 챔피언십 슈퍼리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 FA컵 진출 티켓을 획득한 것이다.

넥센타이어 축구단의 성과가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다. 선수들 모두 오전 6시에 출근해 어느 사우들처럼 업무를 하고, 오후 2시 이후부터 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빠듯한 일과를 소화하며 일군 FA컵 진출이라 모두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선수들 모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꼭 해내고야 마는 ‘하고재비’들이예요!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 피곤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 FA컵을 향한 힘찬 첫걸음

실제로 넥센타이어 축구단에는 국내 K리그와 실업팀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 막강한 실력을 자랑한다. 이성민 감독은 그 가운데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미드필더 세 사람을 꼽았다.

“김태민, 김정대, 홍지인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허리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공격수들은 골 센스와 강한 슈팅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구는 혼자 잘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호흡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성민 감독은 일찌감치 올해의 목표를 잡았다. 당당히 FA컵 64강에 진출하는 것이다. FA컵은 토너먼트 형태로 아마추어팀과 프로팀이 뒤섞여 경기를 치르는 탓에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아마추어팀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큰 프로팀을 이기는 일도 제법 흔하다. 이성민 감독은 이 점을 십



축구는 동글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요. 어떤 팀과 대결하든 자신 있습니다!



분 활용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64강 진출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축구는 동글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요. 3월 23일, 숭실대와의 FA컵 첫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팀과 대결하든 자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건 없지만, 부상만큼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몸이 재산인 사람 이니까요.”

축구단 출범 당시부터 함께해와서인지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이성민 감독. 1승을 목표로 하던 시절을 딛고, FA컵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간 감독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넥센타이어 축구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랜 시간 갈고닦은 실력을 FA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⑩





## 15년 연속 주주총회 개최 1호 기업 진기록

넥센타이어는 지난 2월 12일 오전 9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가운데 최초 주총의 진기록을 15년으로 늘렸다. 이 같은 15년 연속 최초 주총 개최는 투명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주주들에게 경영성과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한 보고, 그리고 이사/감사 재선임이 의결되었으며, 2013년 연결 매출액은 1조 7,2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영업이익은 1,770억 원(영

업이익률 10.2%)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위축과 환율의 하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생산성과 제품 품질의 향상, 완성차업체로의 수요 증가,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현금배당은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65원, 우선주 70원을 각각 결의해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 넥센타이어, 서울 지역 서비스센터 오픈

넥센타이어가 지난 1월 15일 서울지역에 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넥센타이어 서비스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의 정확한 진단과 기술상담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해왔다. CS실장이 국내 20여 개 지점에 각각 근무하며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을 계기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도입, 서비스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보다 먼저, 보다 가까이 고객의 소리를 듣고자 Before-Service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넥센타이어, 美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지난 2월 6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넥센타이어의 친환경 타이어인 N'blue ECO와 UHPE타이어인 N9000, 그리고 소형차 전용인 N'Priz SH9J 3개 제품이 수송디자인(transportation design)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 본상 수상은 지난 2012년 ‘원가드 스포츠’ 제품의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넥센타이어 디자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본부장 한민현 부사장은 “출품한 세 개 제품이 모두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제품의 성능과 품질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고루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넥센타이어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프로야구팀 ‘올해의 넥센인’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3일 서울 방배동 넥센빌딩에서 진행된 ‘올해의 넥센인’ 시상식에서 박병호, 강정호, 손승락 선수가 골든글러브에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올해의 넥센인’은 넥센히어로즈 선수 중 한 해 동안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병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넥센인’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손승락 선수도 함께 상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이날 시상자로 나선 강호찬 사장은 “지난해는 넥센히어로즈가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낸 뜻깊은 한 해였다”며 “2014시즌에는 더 좋은 결실을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미래성장의 동력 대졸 신입사원 입사



넥센타이어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사원들이 입사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채용공고를 시작해 인적성 검사 및 실무면접, 인성면접 등을 거쳐 최종 신입사원 3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 간 입문교육을 받았다. 입문교육은 계열사인 KNN 견학을 비롯해 ‘회사 및 인사 제도 소개’에서부터 ‘타이어 제조 공정 이론 및 안전 환경 교육’, ‘제품개발에 대한 상세교육’, ‘넥센타이어의 인재상에 대한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Top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14일 수료식을 치른 신입사원들은 각자 부서로 발령받아 제 역량을 뽐내고 있다.

## 크라이슬러 2015년형 200 후속 모델에 OE 공급



지난 1월 27일, 넥센타이어는 크라이슬러 200 모델에 이어 후속 모델인 ‘올 뉴 크라이슬러 200’ 세단에도 신차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15년형 신모델은 올해 3월부터 크라이슬러 미국 스틸링 하이츠(Sterling Heights) 공장에서 생산되며, 넥센타이어 CP671 제품이 17~19인치 규격으로 장착된다. 크라이슬러는 ‘2014 북아메리카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넥센타이어의 CP671이 장착된 올 뉴 크라이슬러 200 세단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4’ 본상 수상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넥센타이어의 초고성능(UHP) 타이어 N’FERA SUI1이 본상을 수상했다. N’FERA SUI1은 고속주행에서도 뛰어난 코너링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유럽형 비대칭 타이어로 태풍의 강한 이미지를 직선으로 단순화해 제품에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의 제품이다. 더불어 유럽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빗길주행에서 뛰어난 배수 성능을 자랑한다. 넥센타이어는 각종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자인과 기능을 특성화시킨 우수한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SUV용 타이어 'ROADIAN HTX', 'ROADIAN AT PRO' 출시

ROADIAN HTX RH5는 실용주의 타이어를 표방하며 마일리지 성능을 대폭 강화해 장거리 운행이 많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그재그형 사이프(얇은 홈)와 돌출 프로텍터 적용으로 한국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하여 다양한 기후환경과 도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ROADIAN AT PRO RA8은 온/오프로드용 멀티 타이어로 일반도로

뿐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발휘하며, 고하중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10일 두 신제품에 대한 공식 체험단 발대식을 갖고 한 달 동안 다양한 환경과 도로조건에서의 타이어 성능 테스트를 진행, 직접 고객의 의견을 듣고 수렴했으며 출시 기념 사은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 업계 최초 AEO 공인 AA등급 획득



넥센타이어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재공인과 함께 상향 조정 등급을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1년 국내 업계 최초로 AEO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다시 공인을 받았으며 등급도 A등급에서 AA로 상향 조정되었다.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수출입 품목검사를 대폭 생략하는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뿐 아니라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관리담당 이현종 상무는 "수출입 통관 절차가 간소·신속해지면 시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넥센타이어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우수대리점 초청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 개최

넥센타이어가 지난 1월 15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우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2014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를 개최했다.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리점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올해는 SUV전용 ROADIAN HTX, ROADIAN AT PRO의 신제품 발표회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현봉 부회장은 "지난해 국내의 침체된 시장 상황에도 넥센타이어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노력해 주신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하며 "올 한 해도 고객 만족을 위한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독자들의 생각을 〈헬로우넥센〉담당자와 나누는 코너, N Voice!

2014 신년호에 대한 이모저모를 듣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의견을 우선으로 취합하였으며, 작은 의견이라도 알뜰히 살피는 〈헬로우넥센〉이 되겠습니다.)

퍼즐 맞추기 코너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 하더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창녕Project팀 홍재훈 과장**

가족과 함께 보시라고 사보를 자택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보강에 힘쓰겠습니다.

크로스 피식 코너! 제안했던 코너가 바로 다음번 사보에 실릴 줄이야!! 사우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던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서가 참여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마케팅팀 임영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사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사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넥세니 방문기를 만화 형식을 도입해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RE개발담당 조명국 상무**

그간 수많은 대리점이 항상 비슷한 구성이라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대리점만의 특징점에 주력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 형식을 채택해 보았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주세요^^

넥센 사우가 추천하는 육해공 맛집 코너가 참 좋았습니다. 다만 너무 양산지역 위주라 아쉬웠습니다. 전국 단위도 한번 해주시죠. **구리지점 김경섭 대리**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사무소 주변의 맛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두근두근. 다음호에는 과연 어떤 지역의 맛집이 소개될까요?

우리 사우들의 '첫 월급 사용기'가 재미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한숨소리 같은 "하..."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크크 안양지점 이지선**

한 사우의 기발한 답변이 이지선 사우님께 기쁨을 드렸군요. 기쁨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재미난 설문주제로 사우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일기로 키우는 우리 아이' 코너를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이라 관심이 가더군요. 일기와 관련된 일곱 가지 비법을 지금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생산관리팀 정인호 소장**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사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호의 '놀이의 중요성' 역시 유익한 기사였기를 기대합니다.

해외지법인 소식도 들어가면 어떨까요? **중야팀 김은 과장**

기획 당시 해외지법인 소식 코너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기획이 된다면 꼭 해외지법인 소식을 실을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이사이에 있는 공정 및 설비 소개가 마음에 듭니다. 연관부서가 아닌 이상 공정에 약하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식을 전달해주세요. **자금팀 이상영 대리**

2014년 N Finder 코너에서는 최첨단 최신식 설비로 구성된 창녕공장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여름, 가을엔 또 어떤 모습의 창녕 공장이 찾아올까요?

다른 호에 비해 유난히 좋은 기사가 많았습니다. PCR파트의 순수석 사우 가족 이야기가 읽으며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우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사보에 자주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지점 박종철 지점장**

이 자리를 빌려 섭외에 도움을 주신 PCR파트 윤원국 파트장님과 담당 직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주신 순수석 사우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헌이 강조되고 있는데, 넥센타이어의 신입사원들이 사랑의 연탄을 나누어주어 보기 좋았습니다. **사외독자 장삼동**

이번 칭찬에 멈추지 않고 더욱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가려면 사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 Epilogue

###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nexen) 메시지,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4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5월 15일까지 아래 사보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으시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 **사보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facebook



### 포토퍼즐 맞추기

뒤죽박죽 섞인 사진 조각의 제자리를 찾아 멋진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해주세요.




#### 지난 호 정답

8	4	2
5	9	7
3	6	1

#### 퀴즈 당첨자

- 장삼동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전호재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 석승환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 최명식 경남 양산시 범어로
- 김휘곤 울산시 북구 신천로
- 조항원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 유설인 전남 여수시 예울마루로
- 김정화 전북 군산시 금동안길
- 이미리 부산시 금정구 청룡로
- 박상원 경남 양산시 오봉로




 빗길에 강한 넥센타이어

## 2014 NEW SUV TIRE

타이어 실용주의

# ROADIAN HTX RH5

탁월한 승차감과 마일리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SUV 타이어 



### 국내 최고 마일리지 성능

패턴 최적화 설계로  
마일리지 성능 향상

패턴의 솔더부와 사이드 월을 넓게  
하여 주행 중 방열기능을 향상시켜  
내구력 강화

**Treadwear 640**



### 다양한 도로조건 충족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

그루브 홈과 3D 단면 설계 적용으로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서 주행 성능  
최적화 (돌출 프로텍터 적용 : 오프  
로드 견인력 강화)



### 승차감 & 핸들링 성능

향상된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

트레드 센터와 솔더부에 멀티 시퀀스  
적용으로 소음, 마모, 배수성능을  
극대화하여 승차감과 핸들링 향상




**ROADIAN HTX RH5** (X : EXTRA(추가, 가외))

ROADIAN HTX RH5, ROADIAN AT PRO RA8 크라이슬러 한 DODGE RAM3500 OE 공급



모든 지형에 충족되는 온/오프로드 멀티 타이어

## ROADIAN AT PRO RA8

강력한 내구성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멀티 타이어  

### 온/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 된 패턴 블록

듀얼 블록 적용으로 돌개임 방지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트레드의 손상 방지뿐만  
아니라 비포장 도로에서 주행성능 향상



### 넓은 솔더 블록으로 강화된 내구성

넓은 솔더 블록 적용으로 블록의 강성  
및 안정성을 향상 시키고 고하중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유지



### 터프하고 공격적인 사이드 월 디자인

공격적인 사이드 월 & 그루브 패턴 배열로  
외부 충격으로 부터의 보호성 향상

